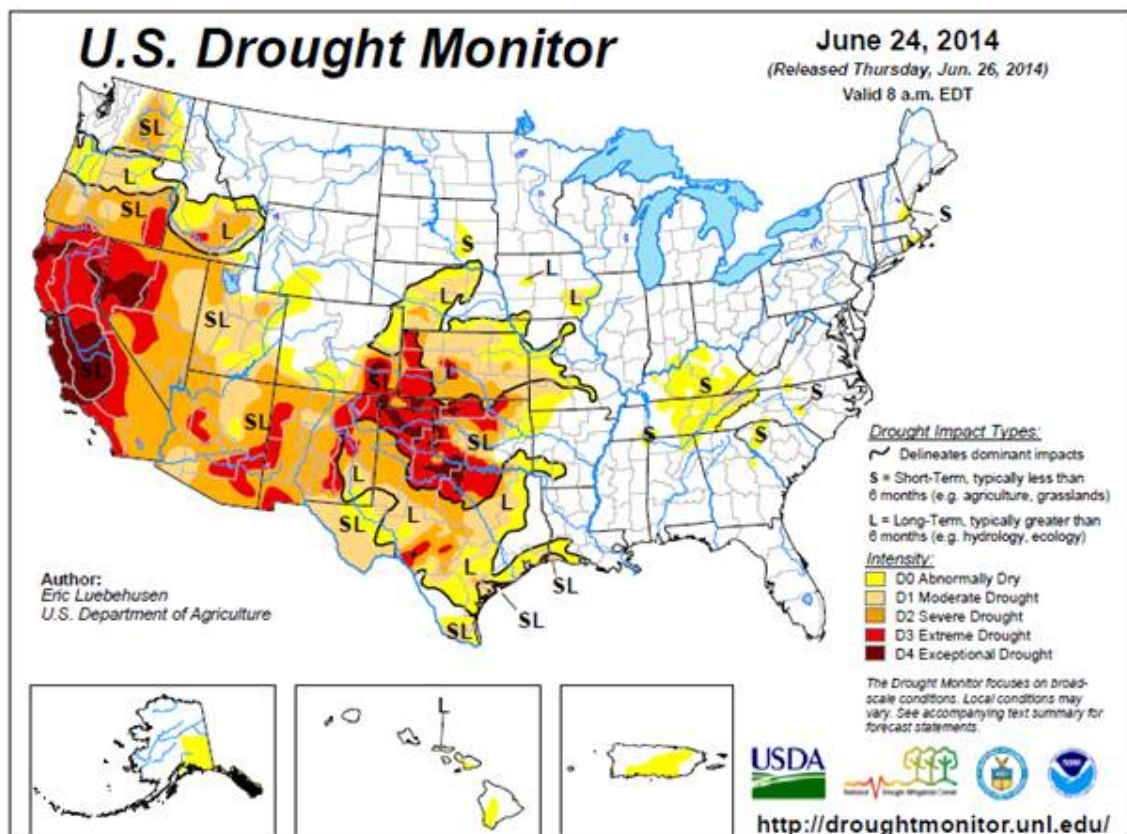


7월 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26)

□ 미국 기후 현황(06/22~06/28)



많은 양의 비가 지속적으로 내려 야외 농작업이 방해를 받았고, 모든 여름작물 생산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할지라도 중서부와 남부, 대평원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3개 지역 주간 총 강수량은 모두 4인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신 월별 강수량 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10인치 넘게 내린 곳도 있었다. 중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려 가을 밀 수확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다. 중부 대평원에서는 가을 밀 수확이 진행 중이며, 남부 대평원에서는 수확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분한 강수량은 대체로 대평원 지역의 봄철 파종된 면화·수수·밀과 같은 작물들에 유리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부 콘 벨트 지역에서는 서늘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로 인해 저지대의 경우 홍수가 발생하는 등,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작물의 생육·발달이 지연되고 있다. 중서부 일부 지역의 경우, 소나기가 내려 국지적인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온난하고 맑은 날씨가 작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남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리기도 하였으며, 중부 걸프 연안지역에 국한되어 과도한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에 적합한 건조한 날씨가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남부 록키 산맥까지 형성되었으며, 소나기는 미숙한 가을밀과 내륙 북서부 지역에 봄철 파종된 소곡물류에 이로운 수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동부와 서부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높은 추세를 보였으며, 보도에 따르면 동부 콘 벨트 지역의 경우 평년보다 평균 기온이 5°F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 현황 요약(06/23~06/29)

오하이오 계곡, 미시시피 계곡 상류, 테네시 계곡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4°F 높은 기온을 나타냈으며, 강수량은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기록되었으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곳은 주간 총 강수량을 기준으로 적어도 4인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지역은 알칸사스,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주(州) 이다. 캔자스 북서부 지역에서는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옥수수

6월 29일 기준, 출사기에 진입한 옥수수는 5%로, 이는 전년대비 2%p 앞섰지만, 5년 평균대비 4%p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옥수수의 상태는 75%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지난주 보다는 다소 높고, 전년 동기대비 8%p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옥수수 최대 생산지역인 아이오와 지역은 79%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일리노이에서는 옥수수 80%의 상태가 좋음/아주 좋음인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두

6월 29일 기준, 전국 대두의 발아율은 95%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4%p 앞섰지만, 5년 평균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개화에 진입한 대두는 10%로, 전년대비 7%p 앞섰지만, 5년 평균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미국 전체 대두의 상태는 72%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난주와는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년 동기대비 5%p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을밀

주말 기준, 미국 전체 생산자들의 가을 밀 수확량은 43%p로 전년대비 3%p 앞섰으나, 5년 평균 대비 5%p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폭풍과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캔자스 지역에서의 가을 밀 수확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전체 가을밀의 상태는 30%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였지만, 전년대비 4%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쌀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쌀 출수율은 9%로 전년대비 3%p 앞섰으나, 5년 평균 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쌀의 상태는 69%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주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며, 전년도 동기 대비 3%p 높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06/22~06/28)

- 유럽: 북부·중부 유럽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남부 농업생산 지역의 경우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지속되었다. 최근 나타난 건조한 날씨 이후로 소량 혹은 적정량의 소나기(2~30mm)가 북부 프랑스와 영국 남부, 폴란드, 발틱 주에 내렸으며, 이로 인해 소곡물류의 충전과 여름작물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토양 수준의 양을 증가시켜 주었다. 남부 유럽의 경우 적정량 또는 많은 양의 강수량(10~70mm)이 기록되었는데, 스페인 지역에서는 여름작물의 관개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었고, 이탈리아와 발칸 반도의 경우 수확전망을 좋음/ 아주 좋음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서부와 남부 유럽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4°C 높음)을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동부 유럽 지역은 평년대비 더 서늘한 날씨가 유지되었다.
- 구소련(서부): 전국적으로 넓은 지역에 내린 비로 인해 평년대비 낮은 기온이 관측되었고, 밀과 여름작물의 수확 전망을 증대시켰다. 주말에 형성된 태풍전선의 영향과 주 초반에 내린 두 차례의 비가 결합되어, 주요 농업생산 지역에서는 20~80mm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러시아 남부 지역의 총 강수량). 비 오는 날씨로 인해 초기 밀 수확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지만, 가을밀의 충전과 여름 곡물의 생식에는 유익한 토양 수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평년대비 5°C 정도 낮은 기온은 고온으로 인한 작물 스트레스의 위험을 최소화시켰으며, 낮 최고기온도 작물 발육에 이상적인 수준인(22~29°C) 것으로 나타났다.
- 동아시아: 만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적정량 또는 많은 비가 내렸으며, 옥수수과 대두의 풍부한 수분 정도를 적당히 유지시켜 주었다. 헤리룽장 지역의 총 강수량은 25mm를 넘었고, 타 지역 총 강수량은 100mm를 넘는 곳도 있었다. 북동부 지역서는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리기도 하였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은 10mm이상을 기록하였다. 북동부 지역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대비 4°C 정도 높았으며,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0°C에 육박하였다. 북 중국 대평원 지역은 대체로 건조하며,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지난주 국지적으로 폭우가 쏟아져, 여름 곡물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양쯔강 곡 인근에서는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많은 지역에서 50mm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였지만, 쌀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국지적으로 200mm 이상), 남동부 연안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다.
- 호주: 호주 서부지역에서는 대부분 맑은 날씨와 적당한 수분공급이 조화를 이루어 밀, 보리, 카놀라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호주 남동부의 경우, 넓은 지역에서 소나기(5~25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내려 겨울 곡물, 유채의 생식에 유익하였으며, 초반작물의 수확 전망을 좋음/매우 좋음 상태로 유지해 주었다. 북부 뉴사우스웨일즈와 남부 퀸즐랜드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소량의 비(5mm 미만)가 내려 밀과 기타 겨울 작물에 수분을 일시적으로 공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남부와 동부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대비 2~3°C 높은 수준이었으며, 호주 서부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C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아르헨티나: 대체로 온난하고 건조한 날씨가 전국을 지배하였으며, 이로 인해 옥수수의

건조와 수확에 도움을 주었고 대두의 경우 수확이 완료되었다. 아르헨티나 중부 주요 농업생산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La Pampa, Buenos Aires, 남부 Cordoba, Santa Fe, Entre Rios), 북서부 농업 생산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소량의 비(5~25mm)가 내린 것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북동부 지역(Formosa, Chaco)은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100mm를 초과하는 곳도 있음), 많은 양의 비로 인해 면화와 다른 작물의 수확에 피해를 주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대비 1~3°C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낮 최고기온은 La Pampa와 Buenos Aires 지역의 경우 10°C 후반으로, Chaco와 Formosa 지역의 경우에는 20°C 후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6월 26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대두 수확률은 95%로 나타났다. 옥수수 수확률은 54%로, 전년의 88%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을밀 파종율은 금년 49%, 전년 53%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옥수수 수확률은 49%p로, 전년 85%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브라질: 남부 브라질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가을밀에 과도한 수분이 공급되는 것이 우려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였다. 남부 Parana에서 북부 Rio Grande do Sul 지역의 총 강수량은 100mm를 초과하였고, 서부 Santa Catarina 지역에서는 2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서부에서 동부 파라과이 지역까지 비가 확산되어 내렸다. 한편, Mato Grosso do Sul, Sao Paulo, Minas Gerais와 같은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탕수수·커피·기타 작물의 수확에 도움이 되었다. 국지적으로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대비 2~3°C 높았으며, 습한 지역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은 20°C 초·중반, 북부 지역의 경우 30°C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난하고 건조한 날씨는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 내륙지역에 형성되었는데, 옥수수·면화의 건조와 수확이 장려되었다. 한편, 계절적인 소나기(10~100mm)는 동부 연안을 따라 지속적으로 내렸으며, 사탕수수·코코아·커피의 수분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